

02 학 력 평 가 와 모 의 평 가

성적표 읽는 법

원점수 · 표준점수 · 백분위 · 등급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원점수와 표준점수	3
03 백분위와 등급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네 숫자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 ◆ 원점수가 떨어졌는데 표준점수가 오르는 까닭 —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 움직임은 백분위로, 최저 판단은 등급으로 — 칸을 나눠 쓰는 법
- ◆ 십 분에 읽는 순서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숫자가 넷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숫자가 넷 나옵니다. 원점수 · 표준점수 · 백분위 · 등급. 네 숫자가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느 칸을 보느냐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숫자	무엇을 말하나
원점수	맞힌 문항으로 계산한 기본 점수
표준점수	평균에서 얼마나 위인지를 점수로 바꾼 것 —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백분위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인가
등급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나눈 것 —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대개 등급입니다. 그런데 등급은 넷 중 가장 거친 숫자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 아주 다른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등급만 보면 그 차이가 통째로 안 보입니다.

왜 넷이나 주는가

하나로는 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점수만 보면 시험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등급만 보면 그 안에서 어디쯤인지 모릅니다. 표준점수는 과목끼리 견주기 어렵고, 백분위는 만점 근처에서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넷을 함께 주고, 볼 때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칸을 언제 보는지 이 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02 · 원점수와 표준점수

어려운 시험에서 갑니다

원점수는 맞힌 만큼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말합니다.

원점수 80점이 잘 본 것인지 아닌지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위인지를 점수로 바꾼 것 —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시험이	원점수	표준점수
어려웠다면	낮게 나옵니다	높게 나옵니다
쉬웠다면	높게 나옵니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떨어졌는데 표준점수는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 경우 가운데 상당수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원점수끼리 견주지 마십시오

3월과 6월의 원점수를 나란히 놓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다른 시험이니까요.

견주시려면 백분위나 등급을 보셔야 합니다. 「몇 점 올랐나」가 아니라 「어디쯤에서 어디쯤으로 갔나」입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표준점수 산출식은 영역·과목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03 · 백분위와 등급

가장 많이 보시는 두 칸

백분위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인가 백분위 90이면 열 명 중 아홉 명보다 잘 본 것입니다.

시험 난이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와 견주기에 가장 낫습니다.

	백분위	등급
얼마나 춡춡한가	100칸	9칸
회차 비교	낫습니다	거칩니다
수시 최저	대개 안 씁니다	등급으로 걸립니다

맨 아랫줄이 등급을 봐야 하는 유일한 까닭입니다. 수시 수능최저는 등급으로 걸려 있습니다.

등급은 이렇게만 쓰십시오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를 볼 때만 등급을 보시고, 「올랐는가 내렸는가」를 볼 때는 백분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남과 견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 구간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등급이 곧 실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 영역별 평가 방식(상대·절대)은 그 해 시행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04 · 그래서 무엇을

십 분에 읽는 순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압니까
1	백분위	지금 어디쯤인가
2	지난 회차 백분위	움직였는가
3	영역별 백분위	어느 과목이 문제인가
4	등급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3번이 실제로 가장 값이 큼니다. 총점이 비슷해도 어느 과목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분위가 가장 낮은 과목 하나를 찾으십시오. 거기가 다음 학기에 시간을 쓸 자리입니다.

성적표를 읽으실 때 여덟 가지

☐ 이번 시험이 **학평인지 모평인지** 아는가

☐ **백분위** 부터 보는가

☐ 원점수끼리 **견주고 있지** 않은가

☐ 원점수가 떨어져도 **표준점수가 올랐는지** 보는가

☐ **영역별** 로 보는가

☐ 가장 낮은 **한 과목** 을 찾았는가

☐ 등급은 **최저 판단에만** 쓰고 있는가

☐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인 것을 아는가

셋째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다른 시험의 원점수를 견주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성적표를 받으시면 **등급 칸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자리 숫자이고 크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등급은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뭉뚱그린 것**이라 백분위 78과 89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움직임을 보시려면 백분위를 보십시오 — 같은 성적표에 더 정확한 숫자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성적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등급은 그대로인데 백분위가 올랐습니다. 오른 건가요?

오른 것입니다. 등급이 거칠어서 안 보였을 뿐입니다.

등급은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나눈 것이라 한 칸 안에서 움직인 것은 등급으로 안 나타납니다.

백분위가 올랐다면 실제로 위치가 올라간 것이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 등급도 곧 바뀝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등급은 그대로인데 백분위가 떨어졌다면 지금 등급의 아래쪽으로 밀린 것이라 다음에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등급이 바뀌기 전에 움직임이 먼저 보입니다.

Q. 과목마다 백분위 차이가 큼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게 정상이고, 오히려 다행입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가 보이니까요.

고르게 낮은 것보다 한 과목만 낮은 편이 대개 회복이 빠릅니다. 원인이 좁으니 손댈 자리도 좁습니다.

보실 것은 그 과목이 왜 낮은가입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인지, 특정 단원인지, 아예 안 한 것인지 — 세 경우의 대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시를 볼 계획이라면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보십시오. 낮은 과목의 비중이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다룬 편(H4)이 있습니다.

다만 수시 최저는 대개 「몇 개 영역 합」이라 낮은 과목 하나가 통째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한 줄로 남기면

움직임은 백분위로, 최저 판단은 등급으로 보십시오. 원점수끼리 견주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역별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는 그 해 시행 계획에 따릅니다.